

지능형교통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

Monthly ITS

04 2026 April Vol. 227
www.its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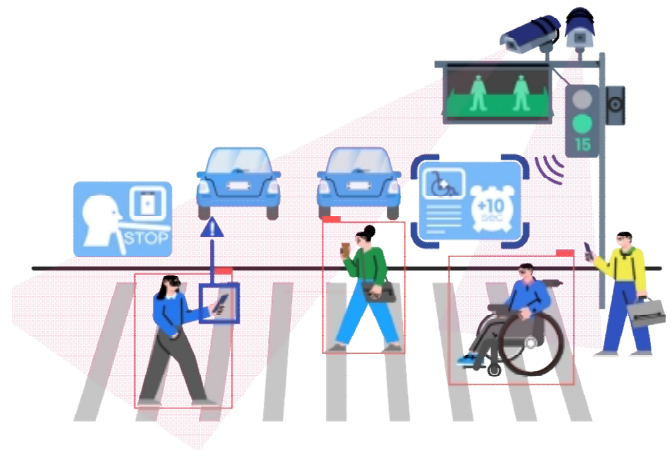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 Monthly ITS 2026 04, 통권 227호

등록번호 ISSN 2508-8513
발행주기 월간
발행인 허청희
편집위원 정민철, 이형석, 김지민, 김영식
발행일 2026년 4월 7일
발행처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
ITS 인증·성능평가센터
전화 031.478.0451

지능형교통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 <Monthly ITS>는 국내외 ITS 정책부터 최신 산업 연구 동향, 실무에 필요한 발주 정보까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협회 홈페이지 e-Book으로도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협회의 자산으로,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전문적 견해이며, 본 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asiakys@its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고

- 2 인터트랙픽 암스테르담 2026 : 공간을 이해하는 인프라, ITS의 새로운 기준
- 8 경험과 가능성 : 실무와 시의 결합, AX로 전환하는 스마트 오피스
- 14 現 이란 정세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집중조명

- 20 주차 데이터로 그리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대흥정보
- 28 현장의 안전을 지능형 인텔리전스로 연결하는 산업안전 DX 선도기업 (주)경우시스템즈

정책이슈

- 36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정책 이해도 제고, ITS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 38 시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 40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 42 교통·환경·안전 도시 문제, 인공지능으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 44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이동은 더 편리하게, 도시는 안전하게
- 47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행 통합 지원,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법령제도

- 48 법령 제·개정 동향

월간토픽

- 50 ITS 관련 주요 뉴스

발주정보

- 54 공공조달 발주동향

협회소식

- 60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월간소식



인터트래픽 암스테르담 2026 : 공간을 이해하는 인프라, ITS의 새로운 기준

서론: 인프라로 자리 잡은 ITS와 전시의 의미

202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에서 개최된 Intertraffic Amsterdam은 도로 교통 인프라 및 ITS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전시회 중 하나로, 약 900개 이상의 기업과 30,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실제 도로와 도시 환경에서 적용되고 있는 ITS 기술의 수준과 방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ITS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그 기술이 실제 도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ITS World Congress에서도 기술이 아닌 문제 해결이 본질이라는 형태로 제시된 바 있으며, Intertraffic에서는 그 흐름이 한층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즉, 이번 전시는 가능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중심이 된 전시였다.



(주)에스오에스랩
인프라영업실
이상빈 실장

전시 전반의 흐름: “운영” 중심의 기술

전시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ITS가 더 이상 추가적인 기술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거에는 ITS가 특정 프로젝트나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부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도로 인프라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기술, 운영 효율 개선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시스템, 유지관리까지 고려된 현실적인 설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을 설치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많은 전시 부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시스템 단위의 데모보다는 실제 적용 사례와 운영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성능 지표보다 구축 이후의 유지관리, 장애 대응, 데이터 활용 방식까지 함께 제시되면서, ITS가 단발성 구축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통 운영, 도로 안전 기술: 센서 기반 공간 인지와 예방 체계로의 진화

교통 운영과 도로 안전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대응 구조가 강화되고 있었다. 기존의 고정형 신호 체계에서 벗어나 교통 흐름을 기반으로 운영을 최적화하려는 접근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교차로 단위 제어를 넘어 전체 교통 흐름을 고려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도로 안전 분야에서도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도로 환경과 이동 객체를 보다 정밀하게 인식하려는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 주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인지 기반 접근이 확대되면서, ITS는 단순한 감시 시스템을 넘어 능동적인 운영 및 예방 중심 인프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결국 단순한 이벤트 감지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차로를 넘어 주차장과 같은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 주차와 공간 관리: 공간 인지 기반 도시 운영으로의 확장

이러한 흐름은 스마트 주차와 도시 공간 관리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Intertraffic Amsterdam은 ITS, Road Safety, Road Infrastructure와 함께 'Parking'을 독립적인 핵심 전시 분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 다수의 주차 및 교통 인프라 기업들이 해당 영역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주차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주차 시스템이 단순히 주차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공간 전체를 하나의 운영 대상으로 보고 차량의 위치와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차량의 유입과 유출 흐름을 분석하고, 주차장 내부 동선을 최적화하며, 도시 교통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항, 대형 상업시설, 도심 외부 주차장과 같은 실외 공간을 중심으로, 넓은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 탐색 시간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 나아가 불필요한 차량 이동 감소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주차 시스템은 더 이상 편의 기능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SOSLAB : LiDAR 기반 공간 인지의 접근

이러한 흐름 속에서 SOSLAB은 LiDAR 기반 인프라 인지 기술을 중심으로 LPGS와 LCAS 솔루션을 전시하였다. LPGS는 3차원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와 점유 상태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미지 기반 시스템과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공간 좌표 정보를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조명이나 날씨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이 적고,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실외 주차 환경에 적합하다. 특히 기존 센서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넓은 공간에서의 일관된 인식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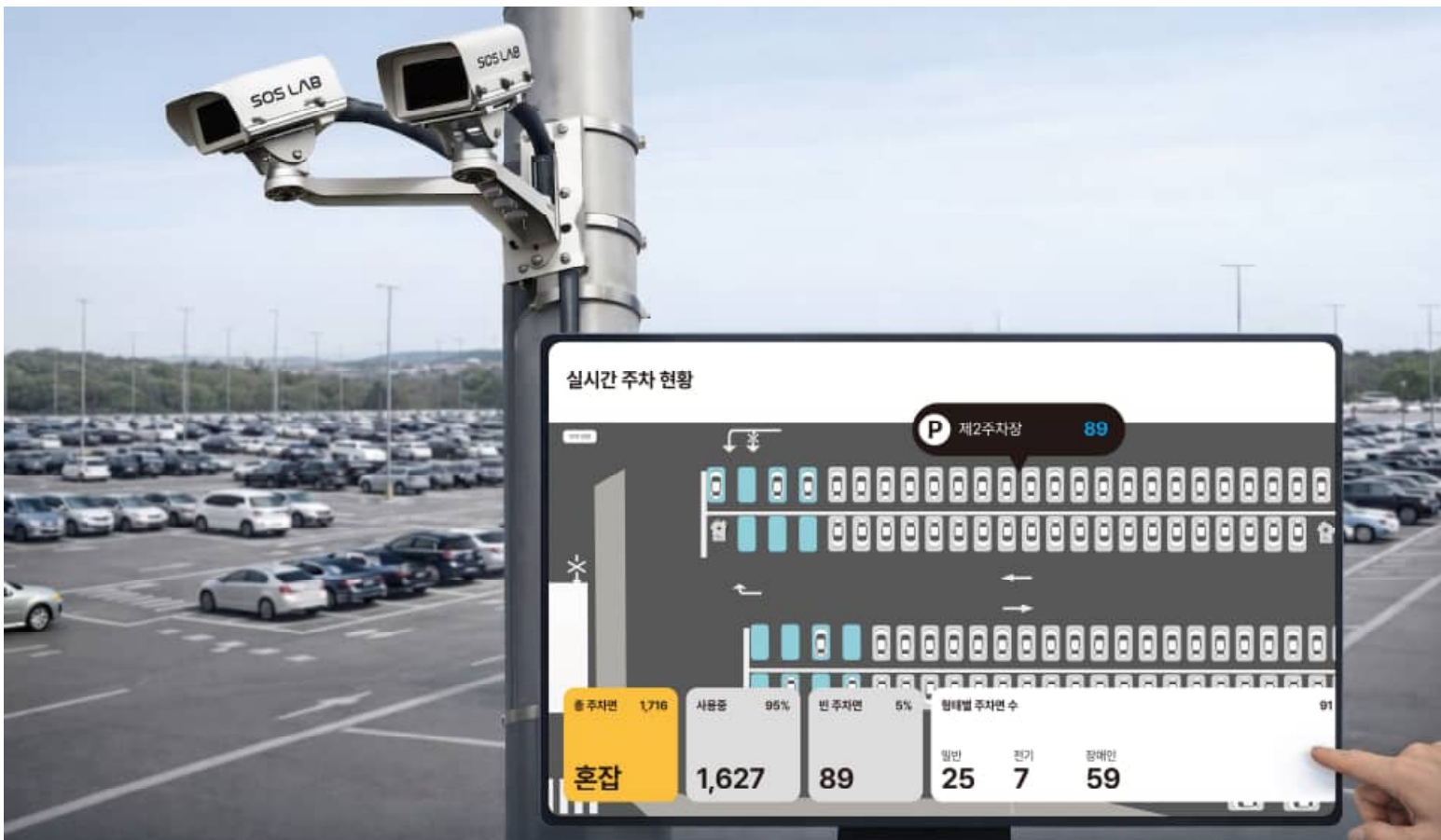
LCAS는 사람의 이동 흐름과 밀집도를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공항이나 터미널과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ITS의 적용 범위가 차량 중심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ITS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을 넘어 도시 전체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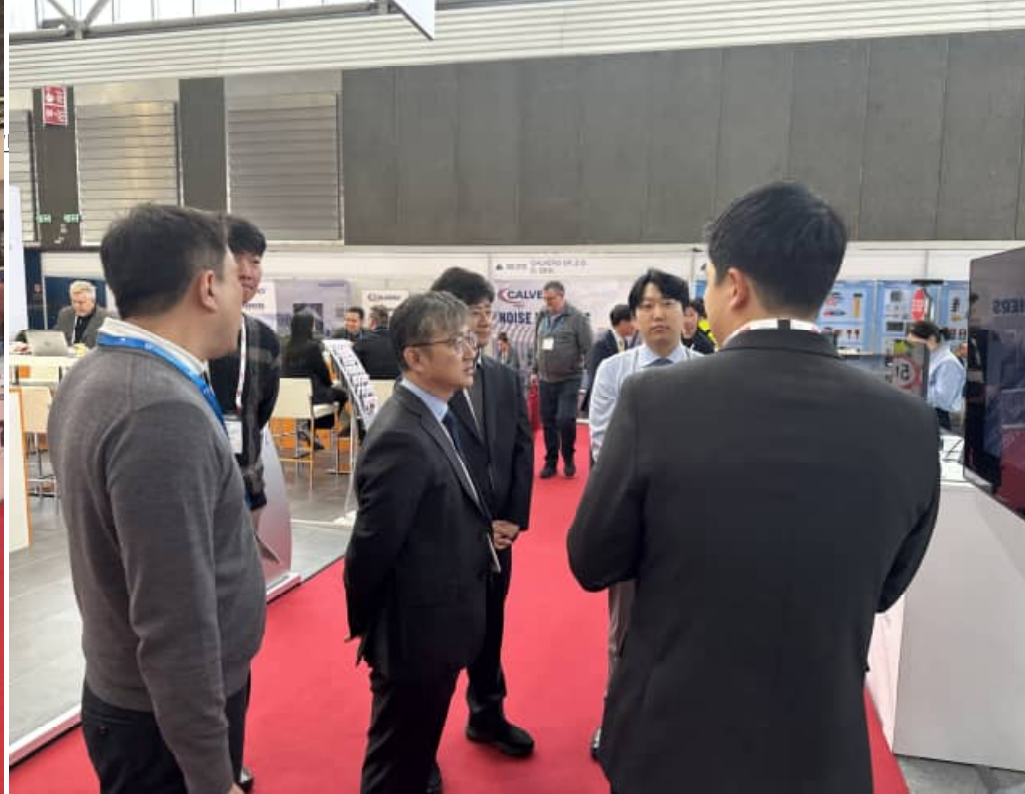
이와 같이 ITS의 역할이 개별 장비 수준을 넘어 공간 전체를 인지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결국 시스템의 성능은 '얼마나 정확하게 공간과 객체를 인식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 LPGS(LiDAR Parking Guidance System, 라이다 기반 빈 주차면 안내 시스템)

※ LCAS(LiDAR Crowd Analytics System, 라이다 기반 군중 유동량 및 혼잡도 분석 시스템)

에스오에스랩의 라이다 기반 주차 솔루션인 LPGS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인터트래픽 행사에서 에스오에스랩 관계자가 주요 인사에게 자사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기술적 시사점: 공간 인지 정확도 중심 경쟁 구조

이번 전시를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키워드는 정확도였다. ITS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며, 그 데이터의 정확도가 곧 시스템의 성능과 직결된다. 특히 교통 운영과 안전 분야에서는 작은 오차도 실제 운영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지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차 및 공간 관리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차 시스템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차량의 위치와 흐름을 기반으로 공간 전체를 운영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개별 객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가 시스템의 핵심 성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시 현장에서 확인한 다수의 솔루션은 카메라 기반으로 실외 공간을 감지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설치와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조명 변화, 그림자, 악천후 등 환경 조건에 따라 인식 성능이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공항이나 대형 주차장과 같은 넓은 실외 공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량 인식의 정확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결국 ITS 시스템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능의 다양성보다,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인식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서의 선택은 단순히 인식 성능을 넘어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방식까지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구축 비용, 유지관리 효율, 확장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간 정보를 직접적으로 획득하고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강인한 인지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은 향후 ITS, 특히 실외 주차 및 공간 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운영 인프라로서의 ITS

Intertraffic Amsterdam 2026은 ITS 기술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전시라기보다, ITS가 실제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전시 전반에서 확인된 흐름은 단순히 다양한 기술의 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공간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운영에 연결하려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특히 교통 운영, 도로 안전, 주차와 같은 개별 영역은 더 이상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센서와 데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다. 결국 ITS는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간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ITS의 경쟁력은 기술의 복잡성이나 규모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도 공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실외 주차와 같은 영역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로, ITS가 도시의 흐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도시의 공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를 실제 운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향후 ITS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도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30,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한 인터트래픽 행사 현장





경험과 가능성 : 실무와 AI의 결합 AX로 전환하는 스마트 오피스

서론: ITS 발전과 업무 변화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 지능형교통체계(ITS) 산업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도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통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축적되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과 서비스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는 별개로, ITS 사업을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무자의 업무 방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의 시스템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실무의 방식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수작업 중심인 경우가 많다.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익숙한 절차를 반복하며, 기존의 분석 틀 안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지금도 많은 실무자의 일상이다.

실무 현장에서 체감한 비효율을 바탕으로,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반복 업무를 줄이고 실무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TS 분야 실무자들에게 작지만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성엔지니어링
교통부
이준오 대리

반복의 굴레, AX로 여는 스마트 오피스

교통 엔지니어의 업무는 축적된 경험과 표준화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교통 분야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복 업무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다. 매일 공공 발주 시스템을 확인해 입찰 공고를 검토하고, 수십만 행에 이르는 교통량 및 OD 데이터를 정제하며, 기존 분석 절차를 수작업으로 반복 수행하는 일은 낯설지 않은 업무 흐름이다. ITS 분야 역시 첨단기술을 다루고 있음에도 이러한 실무의 구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실무 처리 방식의 속도 사이에 점차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고품질의 ITS 데이터가 수집되더라도, 이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실무의 생산성과 분석의 확장성은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실무 프로세스를 함께 전환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반복 업무를 줄이고 분석 본연의 판단과 해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단순한 정보 검색 수단이 아니라 실무 자동화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해 보기 시작했다. 이는 거창한 시스템 혁신이라기보다, 당장 눈앞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험에 가까웠다.

비전공자가 경험한 시의 가능성

시를 활용한 첫 시도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프로그래밍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비전공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문법 자체보다 문제를 구조화하는 능력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막연한 질문에는 막연한 답을 주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고 조건과 결과물을 구체화할수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코드를 얼마나 아느냐보다, 해결해야 할 업무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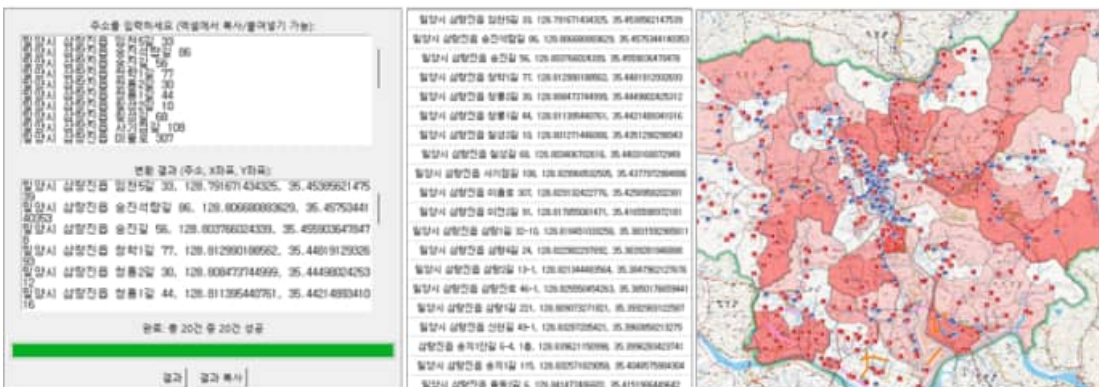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초기에는 GIS 기반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주소 데이터를 분석용 좌표로 변환해야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기존의 웹 기반 지오코딩 서비스나 엑셀 VBA 방식은 대용량 일괄 처리에서 속도와 용량의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주소 목록을 일괄 입력하면 좌표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독립형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처음 시에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그러나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기능 요구, 처리 속도, 출력 형식, 보안 구조, 배포 방식까지 세분화된 요구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경험이라기보다, 비전공자도 시를 매개로 실무 문제를 구조화하고 해결 가능한 단위로 전환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경험이었다.

단계별 프롬프트 요구 과정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기능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줄 주소를 입력받을 수 있는 GUI 기반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카카오 REST API 기반 주소를 XY 좌표로 변환 실행 파일(.exe) 형태로 배포 가능하도록 구성
2단계 처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 데이터 처리 시 프로그램 응답 없음 방지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상태바 추가
3단계 출력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물 즉시 복사 가능 및 [주소, X, Y] 형식의 데이터 구조화
4단계 보안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I 키를 코드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실행 파일과 동일 경로의 api_key.txt에서 읽도록 수정
5단계 구조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yInstaller 기반 exe 변환을 전제로 구조 설계

좌표 변환 프로그램 실행 화면



AI 활용 업무 개선 사례

이후 반복 업무 중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갔다. 실무에 직접 적용하여 성과를 거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대용량 교통 OD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수도권 교통 OD 데이터와 같이 수십만 행에 달하는 자료의 전처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엑셀 기반 작업은 반복적인 필터링과 수식 적용, 정렬 과정을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처리 시간뿐 아니라 오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에 시의 도움을 받아 전처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는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하루에서 이틀가량 걸리던 작업을 약 15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시간 절감에만 있지 않다. 반복 작업의 표준화와 처리 절차의 명확화가 가능해지면서, 분석 과정의 재현성과 일관성을 함께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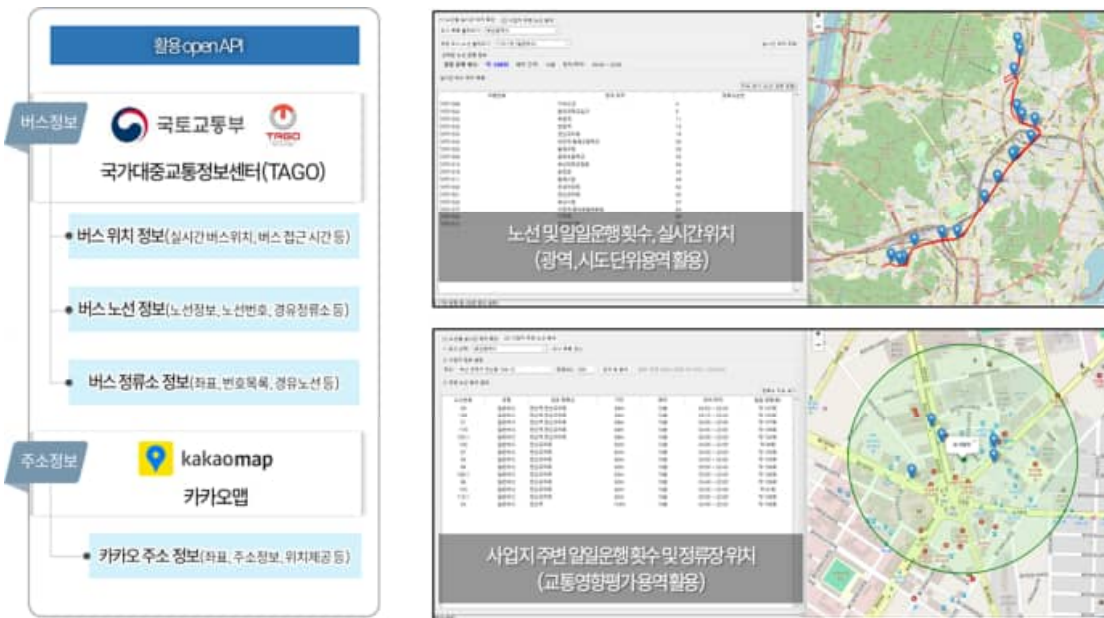


교통 OD 전처리 프로그램 실행 화면

2. 대중교통 버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버스 노선과 정류소 데이터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검토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자료가 방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형식이 분산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필요한 범위만 신속히 추출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지 인근 정류소 현황, 노선 분포, 반경 내 접근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는 단순 목록 정리만으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사업지를 기준으로 반경 범위(예: 300m, 500m)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조건에 따라 지역별 노선 및 정류소를 필터링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처럼 텍스트와 수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적 분포와 서비스 범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보다 결과를 해석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시간의 비중을 높일 수 있었다.



버스 데이터 시각화 실행 화면

3.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

현재 교통 분야에는 다양한 상용 분석 프로그램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은 표준화된 이론과 지침에 기반해 일관된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서는 지역 특성, 조사 여건, 발주 조건, 검토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 방식이 달라지며, 정형화된 프로그램만으로는 현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 현장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이 반영된 각종 분석용 엑셀 파일과 수식,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교통 수요 추정, 용량 산정, 조건별 보정, 가중치 등 선배 엔지니어들이 축적해 온 실질적인 노하우가 담겨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이 개별 파일과 개인 경험 속에 흩어져 있어 조직 차원의 체계로 축적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기존 엑셀 수식을 시의 도움을 받아 코드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거창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개인의 숙련과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업무 구조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분석 속도 향상뿐 아니라, 조직 내 지식 공유와 업무 표준화, 후속 인력의 활용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 분석 플랫폼 중 일부 실행 화면

도구의 변화, 사고의 확장

ITS 산업은 이제 단일 장비의 설치나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도시 전체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시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초연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무자는 방대한 데이터 속 패턴을 찾아내고, 최적의 교통 운영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판단과 결정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교통 이론을 완벽히 이해한 채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대로 교통 엔지니어가 처음부터 완전한 코딩 역량을 갖추는 것 역시 어렵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시라는 훌륭한 통역자이자 조력자가 있다.

논리를 시에게 설명하고,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창의적인 ITS 서비스 기획과 고도화된 분석에 투입한다면 도구의 변화는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무리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과 생산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ITS 분야 역시 디지털 도로망,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 보다, 그것을 실제 업무 방식의 전환으로 이어낼 수 있는가이다.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플랫폼과 업무 구조를 만드는 일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축적된 실무 경험 위에 시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결합한다면, 그동안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더 넓고 깊은 수준의 분석과 서비스 기획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기술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도로 위 ITS 인프라 뒤에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실무자들이 있다. 작은 전환점이 축적될 때, 그것은 개인의 업무 개선을 넘어 조직의 경쟁력으로, 더 나아가 ITS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現 이란 정세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란발 위기: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갑자기 이란을 공격한 미국

2026년 2월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목표로 이란 핵심 인프라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분쟁을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작전이라고 규정했지만, 미국 내 MAGA 지지층의 전쟁 반대로 앞으로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두 분쟁 지역을 오랜 기간 감당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중국 견제를 위한 힘의 비축 관점에서 미국 펜타곤에서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미국 개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이란의 신정 체제와 이스라엘의 Zionism의 충돌은 서구권 정치적 계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분쟁의 명분과 목적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 것인지 언젠가부터 국내 언론은 미국이 아니라 중동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박찬솔 연구위원

중동 분쟁(이스라엘 vs 이란)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중동 분쟁으로 Hard/Soft Commodity 가격이 급등했다. 대표적으로 WTI(유가) 가격이 \$50~\$60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120까지 올랐다가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하락해 3월 말 \$80~\$1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천연가스/원유/전기/해운 운임/비료 포함 일부 소재 가격이 급등한 모습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기 때문인데, 이 해협을 평균적으로 매일 130척의 선박이 통과했다면 지금은 일평균 10척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뢰 뿐만 아니라 해협 안팎으로 선박을 피격하기 시작하면서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 수가 자연적으로 급감했다.

대부분 서방권 국가들에서 Strategic Petroleum Reserve(SPR)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약속했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중동 내 발전 설비가 타격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 둘씩 가동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 단기적인 재가동이 어려워 분쟁이 끝난다고 해도 유가 레벨이 \$60 대비 높은 수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것을 믿을 수 없다

Misinformation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

역사는 전쟁의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란 이슈도 사후적 평가가 가장 정확할 것이다. 러-우 전쟁에서 경험한 것처럼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는 상대방을 교란하고, 힘의 균형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전국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게도 완전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전쟁의 결과가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고, 분쟁 주변의 지역국가들도 전쟁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적인/정치적인 수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분쟁이 어떤 국가에게 이익이고, 어떤 국가에게 손실인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도 상황은 계속 바뀐다. 여기에 더해서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극단적인 상대 압박을 즐기는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미국 중간 선거까지 불확실성이 높아져 미국 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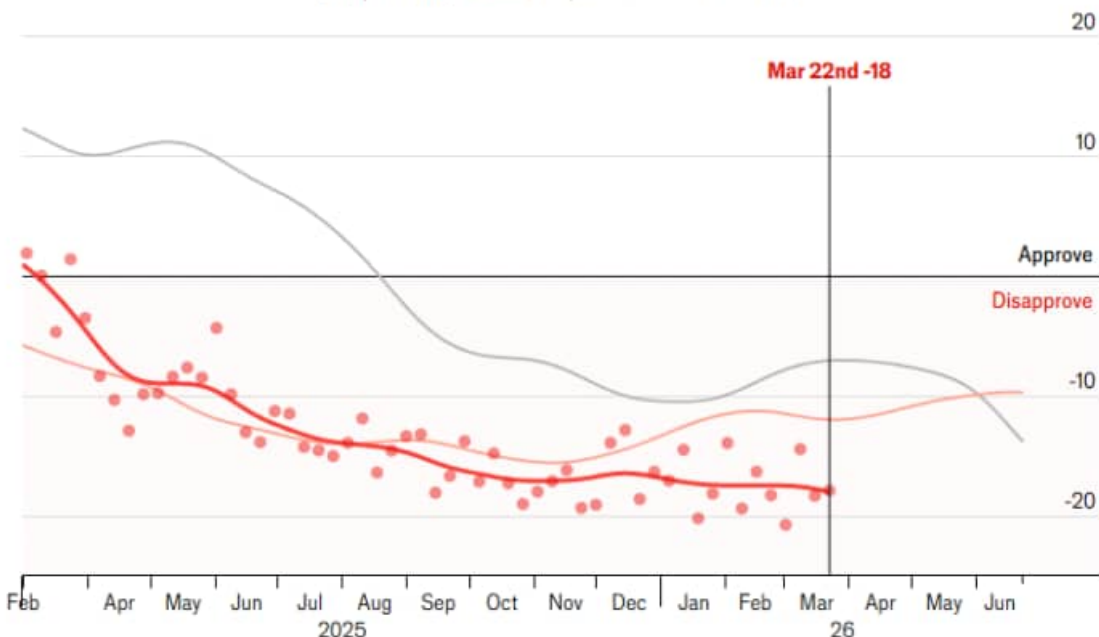
믿기 어렵지만, 정치적인 계산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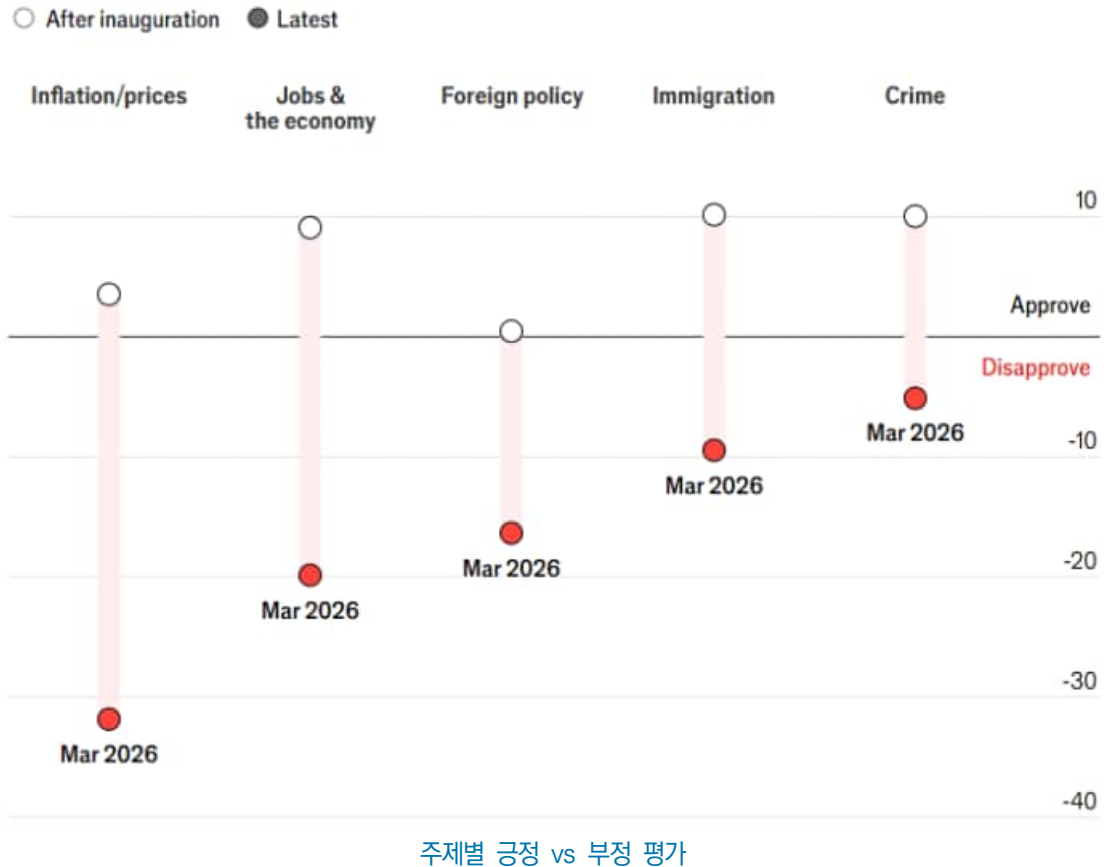
미국의 공격은 꽤 갑작스러웠다. 26년 2월에 글로벌 Service PMI가 둔화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Claude 관련 Agentic AI로 미국 증시가 작년 말부터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매크로 관점에서 봐도 미국 빅테크 Software Service 섹터가 상승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이란 공격이 미국 경기 둔화 사이클 속에서 중간 선거 전 시장을 리셋 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는 관점이다.

트럼프 지지율(과거 대통령과 비교)

Net approval rating, % points

Compared with — Trump 2017 — Biden 2021





위기의 트럼프

美 행정부 vs. 의회 법적 공방 지속 예상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1973년에 「전쟁권한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군사력 동원 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군 통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와의 협의나 군대 철수 의무를 회피해 왔다.

전쟁선포권과 전횡수행권간 헌법상의 모호한 경계, '적대 행위'나 '임박한 위험' 등 법률 용어의 모호성, 의회의 정치적 분열, 사법부의 개입거부 등으로 인해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구속력이 없는 실패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란과의 군사 작전이 60일 이내로 꼭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미국이 시작했지만 이란이 쉽게 끝내지 않을 것

미국은 이란과의 분쟁에서 정치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길게 상황을 끌수록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탄핵될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가 이런 점을 모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기존 행정부에 더 많은 힘이 생겨 이란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란 지도부가 올해 말까지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본다. 중동분쟁 장기전이라는 상황에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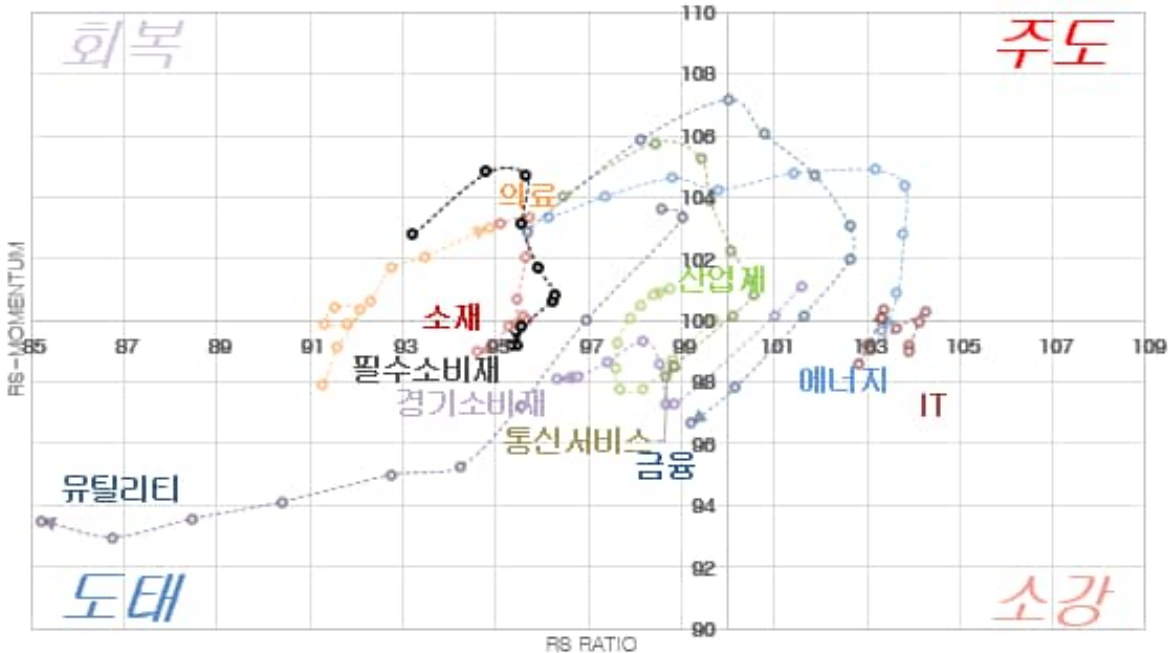
시장이 받는 영향

4월을 넘어가면 기존 자본 시장 사이클에 영향을 미쳐

원자재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오르게 된 부분이 크다. 이란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자재를 아시아권으로 보내는 우회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2월 말부터 3주-4정도(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아시아권에 도착하는 기간) 뒤인 3월 말부터 실제 현장에서 쇼티지를 경험한다.

4월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높은 원자재 가격이 제품/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국가별로 비축유 방출로 상황을 통제하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현재 글로벌 경기 사이클까지 영향을 주면서 자본 시장의 긍정적인 상승 사이클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 경기 민감 산업 보다는 경기 등락에 영향을 덜 받는 방어 성격의 헬스케어/방산 등의 산업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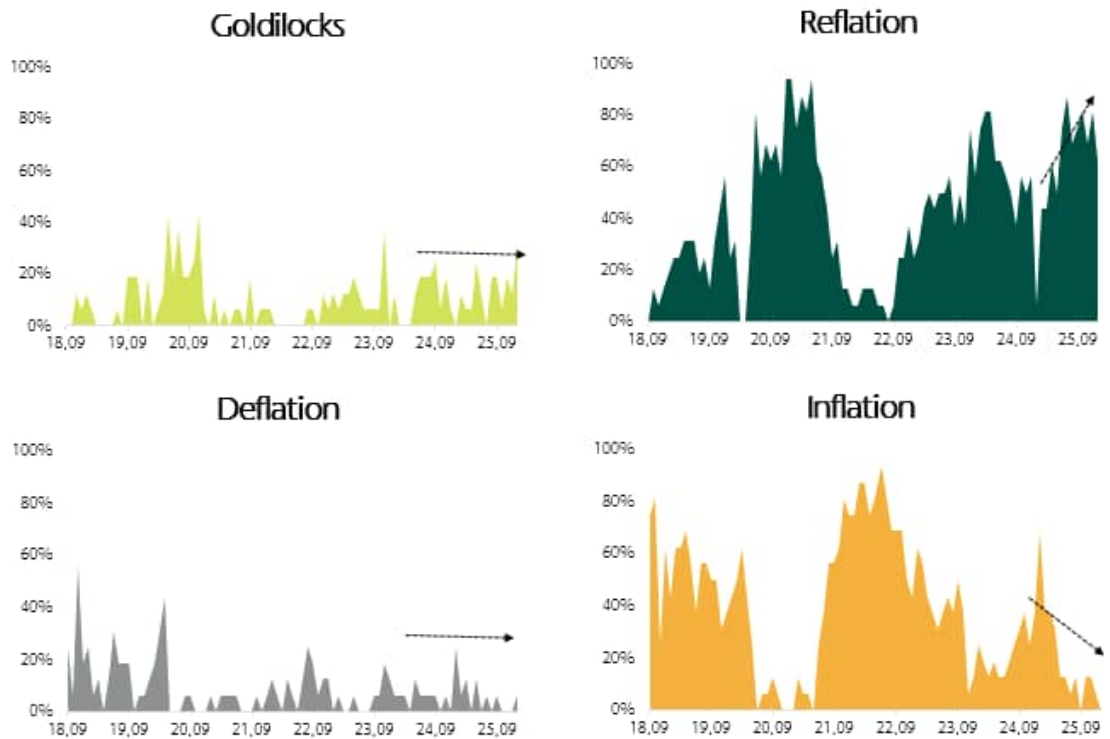
한국 증시 모멘텀 MAP - 의약과 산업재(조선/방산/원자력/전력기기/복합산업)에 대한 시장 선호 예상



3고 현상과 트럼프 정치적 영향력 약화

현재 글로벌 자본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Reflation 국면이다. 즉 제품/서비스의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가격이 앞으로 너무 높아져 물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이 높아져도 꼭 사야만 되는 견고한 수요 제품/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품목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최근 상황에 산업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대체로 그전까지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상황이 반전되기 보다는 결국은 국내 입장에서 고환율/고유가/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별 대비책이 필요하겠다. 단기간 내로 트럼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자산 시장의 Anti- Trump Trade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본 시장 성장 국면



주차 데이터로 그리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대흥정보

(주)대흥정보는 2016년 설립 이래 "IT 기반 기술력으로 고객과 함께 성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스마트 주차 및 ITS 인프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사별 장비 파편화와 데이터 분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단일 플랫폼에서 실시간 통합 제어하는 국내 유일의 특허 기술을 확보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흥정보의 기술력이 집약된 iNerv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은 GS(Good Software) 1등급을 획득하며 공공 시장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특히 2020년 부천시 프로젝트를 통해 ITS 세계대회 명예의 전당상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iNerv IRS)'는 법정 감면 41개 항목을 자동 처리하여 행정 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혁신 사례로 꼽힌다.

2026년 대흥정보는 지능형 영상 분석 플랫폼인 'AI V-Square'를 통해 '눈(영상)과 두뇌(데이터)'가 결합된 차세대 관제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대문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통합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발판 삼아, AI-빅데이터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를 편리하게 만드는" 글로벌 ITS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
**데이터가 만드는 자유로운 주차,
 도시의 모든 흐름을 완성합니다.**
 ”
 - 대흥정보 **여범수** 대표



대흥정보는 스마트 주차 및 ITS 인프라 시장을 선도해 오셨습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대흥정보가 지켜온 핵심 가치와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기술적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주)대흥정보는 2016년 설립 이후 줄곧 하나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IT 기반 기술력으로 고객과 함께 성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창업 당시부터 스마트 주차와 ITS 인프라 분야에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들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데이터가 분절되고, 운영자는 복수의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기종(異機種) 장비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제어하는 게이트웨이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특허로 보호했습니다.

기술적 지향점은 단순한 주차관리 솔루션을 넘어 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ITS 전문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한 곳의 데이터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과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ITS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즉시감면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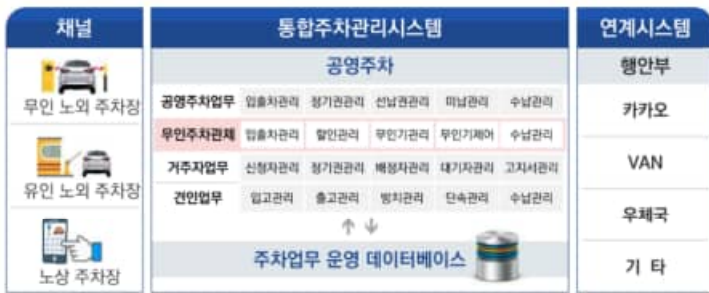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소유자 등 감면 대상자는 기존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리자가 수동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오류가 발생하고, 시민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컸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iNerv IRS는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중앙 시스템과 OPEN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시민이 주차장 진입 시 자동으로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요금을 즉시 정산하는 솔루션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41개 감면항목 지원으로 법정 감면 대상 전체 커버, ❷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기존 공공 시스템과 완벽 호환, ❸ 이기종 주차 및 요금 시스템 환경에서도 중앙 집중 관리 가능, ❹ 부서별 별도 시스템 구축 대비 약 3천만 원의 도입 비용 절감 효과

2023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우수 솔루션으로 소개되며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다수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행정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솔루션입니다.

iNerv IRS 개념도





대흥정보는 작년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하이서울기업으로서의 성과를 이어가며 탄탄한 경영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2026년 상반기에 가장 집중하고 계신 투자 분야와 사업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서울 동대문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사업을 수주하여 20여 개소를 통합 관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기존 통합관제 솔루션에 더해 AI 화재 감시 순찰로봇과 하이패스 기반 무정차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 AI·빅데이터 기능 고도화입니다. 현재의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자가 보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텔리전트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iNerv IRS 확산입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도입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달 등록 제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가 지자체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입니다. 국내 공공 프로젝트에서 축적된 레퍼런스를 발판으로 일본 및 동남아시아 ITS 시장 진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현지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대흥정보의 통합 주차관리 시스템은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데, 대흥정보만의 기술적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흥정보의 핵심 경쟁력은 '이기종 주차장비 통합 프로토콜 및 운영 방법'에 관한 국내 유일 특허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사 게이트 장비와 B사 정산기, C사 CCTV가 혼재된 환경에서도 제조사와 무관하게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단일 플랫폼에서 실시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iNerv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은 주차관제부터 정산·행정업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One-Pass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❶ 통합 게이트웨이 플랫폼: 다중 프로토콜 지원으로 기존 장비 교체 없이 연동 가능, ❷ 클라우드 기반 웹 UI/UX: 반응형 모바일 대시보드로 어디서든 실시간 현황 확인, ❸ 빅데이터 분석 엔진: 주차 수요 예측 및 운영 최적화 지원, ❹ 24시간 무정지 운영: 고가용성 아키텍처로 공공 서비스 연속성 보장

핵심 플랫폼인 iNerv는 국가공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인 GS(Good Software) 1등급을 획득하여 기술 안정성을 공식 검증받았습니다. GS 인증은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중 최고 등급으로,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서도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부천시의 ITS 세계대회 명예의 전당 수상 등 대흥정보의 기술력은 이미 지자체와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해외 스마트 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0년 부천시 스마트 공영주차장 사업은 저희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기종 장비 통합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한 One-Pass 솔루션을 실제 도시 현장에 구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인 이 사업이 ITS 세계대회 명예의 전당상과 대통령표창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국내외에 공식 인증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 전략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¹단계 레퍼런스 구축(단계): 국내에서 축적된 동대문·부천·파주·화성 등 다수의 지자체 성공 사례를 체계적인 영문 케이스 스터디로 정리하고,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사업이나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합니다.

²단계 현지 파트너십(중기): 공영주차장 인프라 현대화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도시(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와 노후 주차 시스템 교체 수요가 있는 일본 지방 자치단체를 우선 타겟으로, 현지 ITS 기업 또는 SI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합니다. 저희 솔루션의 이기종 장비 통합 특성상, 기존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해외에서도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대흥정보의 기업문화와 인재상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대흥정보는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통합 관제 운영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문제가 개발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것이 저희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인재상은 간단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운영 중에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기술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저희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서 빠른 실행력과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대흥정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제4회 상용·AI SW Market Fair에서 대흥정보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제4회 상용·AI SW Market Fair 참가 소감과 준비 과정에서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상용·AI SW Market Fair」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약 500명이 참관하는 공공 조달 시장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전시회로, 저희 대흥정보는 6M×2M 규모의 프리미엄 부스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보는 전시'가 아닌 '경험하는 전시'였습니다. iNerv 통합주차관리 플랫폼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iNerv IRS), 그리고 신규 솔루션인 AI V-Square를 함께 전시하여, 방문객이 단계적으로 저희 솔루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스 동선과 데모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참가 대상이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라는 점에서, 기술 설명보다는 실제 운영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부천시 ITS 세계대회 수상 사례, 동대문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성과, iNerv IRS 도입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핵심적으로 선보인 AI V-Square 솔루션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무엇이며, 이번 참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신제품은 AI V-Square(AI 기반 스마트 주차 영상관제 플랫폼)입니다. 기존 iNerv 통합주차관리 플랫폼이 운영·정산·행정의 통합에 강점을 가졌다면, AI V-Square는 영상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제에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능을 소개하면, 주차장 내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LPR), 빈 주차면 감지, 이상 상황 자동 알림, 영상 데이터 아카이빙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하드웨어 투자 없이 도입 가능한 점이 지자체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AI V-Square는 기존 iNerv 플랫폼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영상 관제로 수집된 데이터가 통합관제 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과 결합되면, 시간대별 주차 수요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상 상황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됩니다. '눈(영상)과 두뇌(데이터 분석)가 연결된 주차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 참가의 가장 큰 의미는 공공 조달 의사결정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저희 솔루션의 주요 고객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인데, 이처럼 약 500명의 정보화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는 영업과 홍보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채널입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지자체 발굴입니다. 기존에는 접촉하기 어려웠던 지방 중소 도시의 공영주차장 담당자들과 직접 네트워킹하여 iNerv 플랫폼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둘째, AI V-Square 초기 레퍼런스 확보입니다. 신규 솔루션인 만큼 현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또는 시범 도입 의향이 있는 기관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브랜드 신뢰도 제고입니다. GS 1등급 인증, ITS 세계대회 수상, 다수의 지자체 성공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설명함으로써, '검증된 공공 IT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AI V-Square 도입 효과

'비차량도 차로 센다?' AI가 해결했다

대흥정보, 세계 최초 AI 기반 주차관제 시스템 'AI V-Square' 출시

BEFORE : 기존 시스템

비차량 오인식 빈번

희기적 개선

AFTER : AI V-Square 도입

관제사 업무 **96% 감소**
정확도 **97% 달성**
전국 21개 지자체 검증 완료

대형정보가 그리는 미래의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는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시민이 주차를 '의식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빈 공간을 찾아 헤매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요금 정산을 위해 멈추지 않아도 되는 환경.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는 도시 이동의 마지막 1마일(Last Mile)입니다. 아무리 교통 인프라가 발전해도, 목적지에 도착한 후의 경험이 불편하면 전체 이동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마지막 단계를 매끄럽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왔고,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도시 교통 전반과 연계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모빌리티 혁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형정보가 궁극적으로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를 편리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화려한 기술 시연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솔루션, 시민이 편리함을 느끼는 순간 그 뒤에 조용히 대형정보의 기술이 있는 것, 그것이 저희의 지향입니다. ITS Korea 회원사로서 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ITS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도 계속 기여하겠습니다.

‘제4회 상용·AI SW Market Fair’에서 대형정보 임직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장의 안전을 지능형 인텔리전스로 연결하는 산업안전 DX 선도기업 (주)경우시스테크

(주)경우시스테크는 지난 27년간 ICT 기반 전장 솔루션과 산업 안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길을 걸어온 혁신 기업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기술 혁신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장비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현장 그리고 모빌리티 환경을 가장 안전하게 잇는 '안전 중심의 연결'에 있다.

경우시스테크의 기술적 자부심은 초광대역(UWB) 통신 기술에서 출발한다.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 측위가 가능한 UWB 기술을 건설·물류·제조 등 복잡한 산업 현장에 최적화하여, 작업자와 장비 간의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IPAS, IVIEW+ 등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특히 올해 초 CES 2026에서 선보인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의 스마트 어라운드 뷰(S-AVM)는 건설기계가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 체계를 실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2025년 '안전산업혁신상(K-Safety Awards) 대상'과 'AIoT 혁신대상' 수상으로 이어지며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V2X·AI 기반 모빌리티 안전관리 플랫폼인 'AIDE'를 통해 도로 위 안전까지 아우르는 이들은, 이제 산업 현장 전반의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하는 'Industrial AI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다.

“ 피지컬 시로 현장의 위험을 지우고,
사람 중심의 내일을 잇겠습니다. ”

- 경우시스테크 장용준 대표



경우시스테크는 ICT 기반의 전장 솔루션과 산업 안전 분야를 선도해 오셨습니다.

경우시스테크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경우시스테크가 지향하는 기술 혁신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더 많은 장비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사람과 산업 현장, 그리고 모빌리티 환경을 더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ICT 기반 전장 솔루션과 산업안전 기술은 결국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순간에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시스테크는 단순한 장비 공급이나 정보 수집을 넘어,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실시간 대응과 운영 개선까지 이어지는 기술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와 산업 현장은 점점 더 복잡하고 연결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물류, 제조와 같은 산업 현장과 도로 위 모빌리티 환경 모두에서 차량·작업자·인프라·관제 시스템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의 기술은 개별 장치의 성능을 넘어 현장을 이해하고 위험에 개입하는 지능형 안전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우시스테크는 V2X·AI 기반 모빌리티 안전관리 플랫폼(AIDE)을 통한 운전자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IPAS, IVIEW+와 같은 산업현장 안전 솔루션을 통해 작업자와 장비 중심의 위험 관리까지 아우르는 현장 기반 안전 인텔리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우시스테크의 기술 혁신이 지향하는 바는 특정 영역의 솔루션이 아니라 모빌리티와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안전 중심의 연결'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초광대역(UWB) 통신을 활용한 독보적인 안전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신데,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경우시스테크만의 기술적 강점은 무엇입니까?

경우시스테크의 UWB 기반 안전 솔루션은 단순한 위치 측위 기술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UWB는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한 위치 인식이 가능하지만 건설·물류·제조와 같은 산업 환경에서는 구조물 간섭, 전파 반사, 작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이론적인 성능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시스테크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위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최적화 기술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위치 인식과 실시간 안전 개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IPAS, IVIEW+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 축적된 경험은 단순 측위를 넘어 작업자와 장비 간 위험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경고와 대응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강점은 특정 기술이나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밀한 상황 인지와 실시간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울러 차량, 보행자,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정밀 인지와 즉각적인 대응 구조는 안전 중심 운영 체계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열린 CES 2026에서 건설기계용 '피지컬 AI(Physical AI)' 솔루션을 선보여
큰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솔루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CES 2026에서 선보인 경우시스테크의 '피지컬 AI(Physical AI)' 솔루션은 건설장비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솔루션입니다. 카메라·모니터·인공지능이 통합된 스마트 어라운드 뷰를 기반으로, 건설기계 주변의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장비 운용의 안전성과 지능화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해당 솔루션은 차량 주변에 설치된 다수의 카메라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화면으로 제공하는 일반형 어라운드 뷰 시스템에 AI 기반 사람 감지 기능을 결합한 카메라·모니터·인공지능이 통합된 건설 기계 전용 스마트 어라운드 뷰 솔루션입니다.

기존 어라운드 뷰가 단순히 '보여주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번 솔루션은 작업 반경 내 작업자를 인식하고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즉각적인 시각적·청각적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작업자와 건설장비가 혼재되어 있는 환경으로 사각지대나 상황 인지 지연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시스테크는 이러한 환경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반응하는 'Physical AI' 개념을 실장비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솔루션은 단순한 영상 장비가 아니라, 건설장비가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 체계를 현장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우시스테크는 이를 시작으로 건설·물류·제조 전반의 산업 장비를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술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기반 '스마트 어라운드 뷰(S-AVM)' 시연





2025년은 '안전산업혁신상(K-Safety Awards) 대상' 수상과 'AIoT 혁신대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5년은 IPAS를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 안전 솔루션이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효과와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안전산업혁신상(K-Safety Awards) 대상 수상은 저희가 지향해 온 '현장 중심 안전 기술'의 방향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상반기의 목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건설, 물류, 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IPAS와 같은 안전 솔루션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여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현장의 사고 감소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AIDE와 같은 모빌리티 인텔리전트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과 도로 위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 관리 체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2026년 상반기는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성과를 창출하는 시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우시스테크가 글로벌 무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현재 경우시스테크는 IPAS와 IVIEW+를 중심으로 30개국 이상에 솔루션을 공급하며 산업현장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별 작업 환경과 안전 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장 적응성과 기술 신뢰성이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PAS 제품 사진

글로벌 시장에서의 목표는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각 국가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지화 기반의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우시스테크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유통 및 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설치, 유지보수, 기술 지원까지 이어지는 현장 밀착형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물류, 제조 등 산업별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동일 산업군 내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수평 확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의 모듈화와 현지 환경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IPAS, IVIEW+와 같은 산업안전 솔루션뿐만 아니라 차량 전장 제품과 AIDE와 같은 AI 기반 모빌리티 인텔리전트 솔루션까지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과 모빌리티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우시스테크의 글로벌 전략은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안전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EO로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CEO로서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 기술이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과 모빌리티 환경은 각각 특성이 다르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준 또한 기술 자체보다 안정성, 현장 적용성, 운영 편의성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우시스테크는 제품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고객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반영하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IPAS, IVIEW+, AIDE와 같은 솔루션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실제 운영에 적용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기술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경우시스테크의 기업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우시스테크의 기업문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급이나 형식보다는 역할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소통하며 권위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구성원 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는 위에서 지시하는 방식보다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협업과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우시스테크는 여성친화기업으로서 다양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통해 실무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문화는 단순한 분위기를 넘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조직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기업가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험한 안전 관련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물류, 제조 등 다양한 현장을 접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응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미한 문제가 중대한 사고로 확산되는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기술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의 완성도나 기능적인 측면에 더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이 기술이 실제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IPAS, IMIEW+, AIDE와 같은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되었고, 지금도 모든 기술과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시스테크는 특정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그치기보다 해당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적용하는 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도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과 사업을 판단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우시스테크가 바라보는 미래 교통 환경 및 산업 현장의 모습은 어떤 형태인가요? 그 안에서 '안전한 연결'을 책임지는 전문 기업으로서 독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교통 환경과 산업 현장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차량·인프라·사람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모빌리티 생태계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S 환경에서는 개별 차량의 상태를 넘어 도로 상황, 주변 객체, 운전자 행동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 체계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우시스테크는 V2X·AI 기반 모빌리티 안전관리 플랫폼 'AIDE'를 통해 단순 관제를 넘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Pre-Accident 중심의 안전 관리 패러다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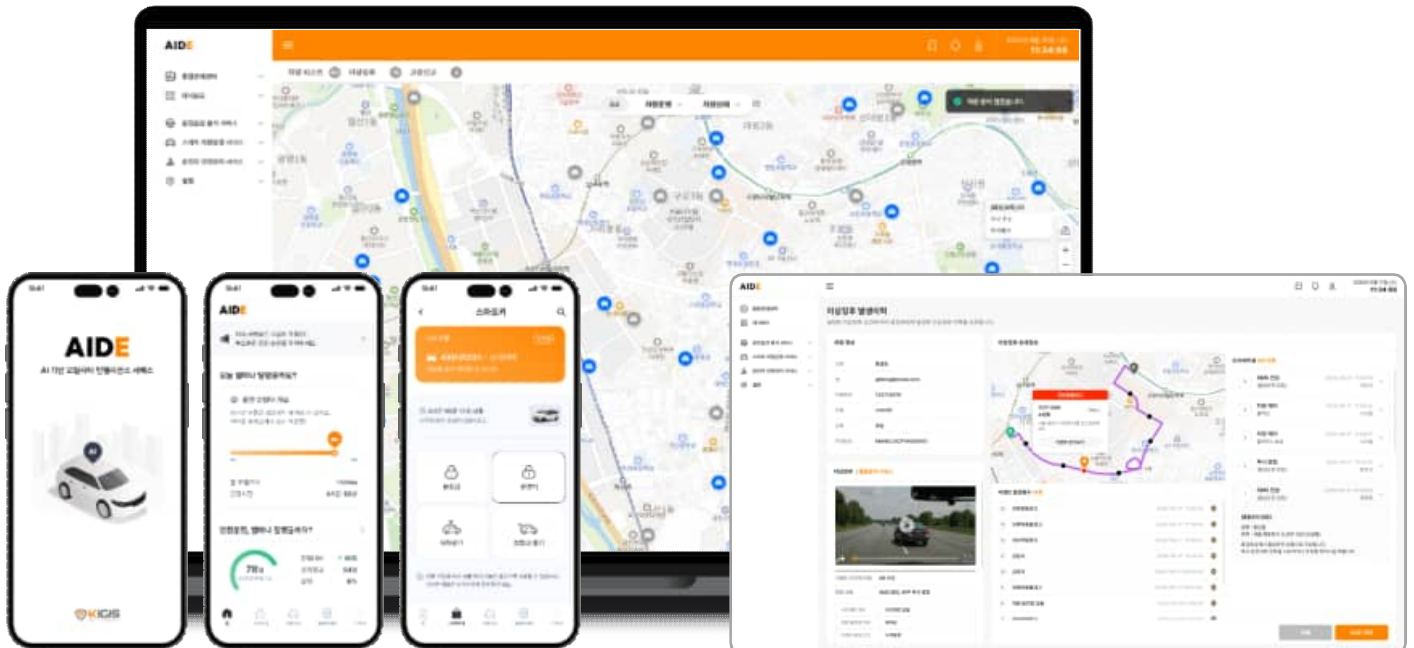
차량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 행동을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후 대시캠을 통해 음성 알림과 날씨, 주변 도로 상황 및 객체 인식 정보를 결합한 경고를 운전자에게 즉각 전달함으로써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통해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사고 이후 원인 분석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로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지원 차량, 물류·화물 차량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여 단순 효율 향상을 넘어 사람 중심의 안전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연결이 끊기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연결'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경우시스테크는 앞으로도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위험 인지와 대응 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이동이 더 안전해지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빌리티를 넘어 건설·물류·제조 등 산업 현장 전반으로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현장 데이터와 지능형 분석을 연결하는 Industrial AI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경우시스테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변화하는 ITS 환경 속에서 '안전'이 기술의 중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V2X·AI 기반 모빌리티 안전관리 플랫폼 AIDE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정책 이해도 제고 ITS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개요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는 오는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ITS 관련 기업 관계자 약 160명을 대상으로 '2026년 ITS 정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민간에 상세히 공유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ITS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2026년 ITS 주요 사업 및 정책 발표

설명회 본 세션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주요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올해 추진되는 ITS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도로 ITS 구축 및 운영 분야에서는 국도 ITS 위탁사업과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공고 일정을 공유하여 민간 기업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및 표준화 분야와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 사업,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ITS 표준화 사업 계획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국제 협력 및 지원 분야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강릉 ITS 세계총회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회원사들을 위한 별도의 기업 지원책을 소개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사개요

구분	내용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일시/장소	'26년 4월 17일(금) 14:00~17:40 / 건설회관(논현동) 2층 중회의실
참석대상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ITS 관련 기업 관계자 약 160명
주요내용	2026년 ITS 주요 구축사업 계획 발표 및 민간 협력방안 논의

민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국토교통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ITS 장비 제조, 솔루션 개발, 시스템 통합(SI) 등 산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행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관계자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 개회사	ITS 협회장
14:10 ~ 14:40	• 국도 ITS 위탁사업 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강우석
14:40 ~ 15:10	•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임도훈
15:10 ~ 15:40	• 교통량조사 사업 추진계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대철
15:40 ~ 15:50	• 휴식	
15:50 ~ 16:20	•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사업계획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원근
16:20 ~ 16:35	• ITS 표준화 사업 추진계획	ITS 협회 김경환
16:35 ~ 16:50	• 강릉 ITS 세계총회 추진계획	강릉총회 조직위원회 이상원
16:50 ~ 17:05	• ITS 협회 회원사 지원계획	ITS 협회 김수지
17:05 ~ 17:30	•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ITS 관계기업
17:30 ~ 17:4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디지털도로팀장

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2026. 3. 5.(목)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공모 개요

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전남권: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경북권:대구)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사업, (전북권:완주 / 경남권:창원) 피지컬AI 기반 제조혁신 지역 AX 사업

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 (공모일정) 공고(3.6) → 제안서 신청·접수(5.18~22) → 평가 및 선정(6월),
(설명회) 3.11(수)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I: AI Transformation)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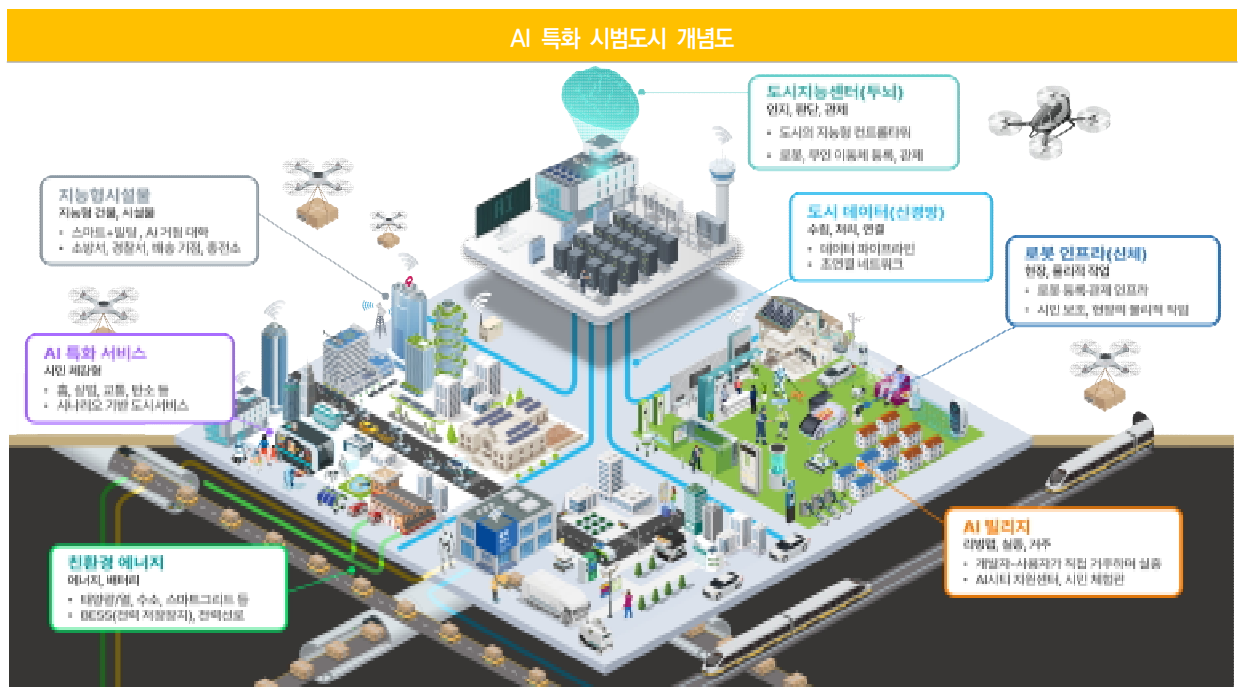
주요내용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국비 20억원)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대규모 지방투자", '26.2.27)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2026. 3. 11.(수)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모결과

이번 공모(1.7~2.5)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지역 내 공공서비스 등에 실증·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1.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결과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분야 및 참여 지자체

AI 기능 유형	선정 지자체	
K-드론배송 상용화 (25개 단위사업)	기존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경기 이천시, 경기 시흥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양시,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경남 통영시*, 울산 울주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
	신규	수원특례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논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4개 단위사업)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8개 단위사업)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평택시, 충남 공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통영시*	

* 2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지자체

2.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모터·배터리)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분야 및 참여 기업

분야	세부사업(선정 수) 및 대표사업자			
5대 완성체 상용 개발 (8개 사업자)	소방(1)	엔젤릭스	항공안전(1)	엔에이치네트웍스
	물류(1)	나르마	농업(2)	볼로랜드, 서우
	시설관리(3)	시에라베이스, 어드바이저로렌, 파블로항공		
부품국산화 (4개 사업자)	모터(2)	케이알엠, 에이릭스	배터리(2)	LG엔솔, 비이아이
핵심기술상용화 (7개 사업자)	총돌방지(2)	탑스커뮤니케이션, 유비파이	항재밍장치(2)	에이디시스템, 다번치랩스
	영상송수신장치(3)	쿠오핀, 아스트로엑스, 프리뉴		

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 드론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에 선택·집중으로 산업·재난 현장의 노동집약적 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작업·관리 등 국가 드론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지원

교통·환경·안전 도시 문제, 인공지능으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2026. 3. 12.(목)

사업개요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 ‘26년 강소형 지원사업의 경우, ‘25년 하반기에 기선정(전남 순천, 경북 안동, 충북 제천)

‘26년 거점형·특화단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를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공모일정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금)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개소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유형별 주요 내용(강소형)

구분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내용	친환경·탄소중립 기반, 기후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등)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 新 모빌리티 공간수요 반영, 지역교통 문제 해결 지원
대상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이동은 더 편리하게, 도시는 안전하게

국토교통부, 2026. 3. 12.(목)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안전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화성시 서부권(남양읍, 새솔동, 송산면, 마도면 일대), 구역 36.13km², 노선(연장) 46.5km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I 자율주행 허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옥주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화성특례시 부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개소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할 계획으로,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 ① 교통약자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②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③ 공유차, ④ 도시환경관리, ⑤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⑥ 응급환자 이송차량, ⑦ 마을버스, ⑧ 순찰차 순찰로봇

이날 사전시승 행사로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김윤덕 장관이 시험운전자로 직접 운전석에 탑승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이동하였다. 해당 차량은 교통소외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 차선 등이 없는 비정형도로까지 운행 가능한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발)이 탑재되어 있다.

자율주행 허브 역할

자율주행 허브는 아직 불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관제센터로서 화성시 일대의 교통흐름, 도로상태, 객체인지, 신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율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 교통소외지역의 이동지원을 비롯해 노면청소, 도로 모니터링 등의 도시관리까지 일상 속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으로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확산을 도모한다.

아울러, 기술 완성도가 낮은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학(원), 연구기관 등을 위한 기술실증과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하반기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AI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라는 두 축을 원동력 삼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명	서비스 실증계획	서비스 구간	자율차(65대)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26년 4월(10대)	-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및 주변 리 지역(51.7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니발 5대 아이오닉5 5대 
실시간 수요대응 자율주행 대중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기억하고 학습하여 최적화된 동적 경로로 고객을 운송하는 서비스 (First-and-last mile DRT 서비스)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5대) 12월(10대까지 잔여차 순차적 확대) 	-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2.1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니셔틀 15대 
공유차(Car-Sharing)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차량을 특정 시간 동안 대여하여 출발지-목적지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 차량 픽업 없이 차량이 콜 지점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8대) 3분기(2대) '27년(10대)	- 화성시 새솔동~남양읍~마도산단~바이오산단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레스 EVX 20대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노면청소 차량 운영 도로 노면청소 + 미세먼지 공기청정 차량 운영 방역/소독 차량 운영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노면청소 1대), 5월(복합기능 2대), 6월(방역소독 1대), 4분기(미세먼지 1대) 	- 화성시청(남양읍) ↔ 송산, 마도(산단), 새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관리 차량(봉고 EV) 5대 

서비스명	서비스 실증계획	서비스 구간	자율차(65대)
<p>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지원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취약구역 선정, 취약구역 · 인프라 모니터링 	<p>'2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1대) • 4분기(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산 그린시티~새솔동~화성 시청~마도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리아 2대 
<p>자율주행 Lv4/4+ 기반 긴급차량 통행지원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불런스 응급 이송 지원 서비스 (환자이송, 응급처치) • 현장대응 통행지원 서비스(단속, 사고, 현장대응) 	<p>'2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응급이송 2대), • 7월(현장대응 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남양, 송산, 마도, 새솔 및 화성시(항남 등)~수원시(권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불런스 2대 • 현장 대응 차량 2대  
<p>지정노선 기반 다목적 자율주행 중형버스 차량 플랫폼 (산업부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노선 기반으로 하는 중형버스 (마을버스) 	<p>'2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월(노선버스 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솔고~남양로~화성시청(화차) ~ 남양로~새솔고 노선 구간(약 28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형 저상 전기버스 2대 
<p>능동적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순찰 서비스 (경찰청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순찰차 및 순찰로봇 	<p>'27년</p> <p>7월~12월 (순찰 5대, 로봇 2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하반기 실증 계획 수립 예정(관할 경찰서 협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교통순찰차(MPC) 1대 • 소형 자율순찰차(SPC) 4대 • 소형 자율순찰로봇(SPR) 2대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영 통합 지원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국토교통부, 2026. 3. 9.(월)

개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협력내용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1.30~2.12) 결과 3개 분야에 총 11개 기업(자동차 1개사, 보험 5개사, 운송플랫폼 5개사)이 참여하였다.

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SDV)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하여,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

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 동향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3.19.] [대통령령 제35387호, 2025.3.1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대상·내용 및 방법을 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해당 기간에 실제로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신설〉	<p>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p> <p>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p>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p> <p>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p> <p>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p>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3월 모빌리티 산업은 AI 안전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상용화가 핵심적인 흐름이었다. 국내의 긴급차량 신호 광역 연계와 강남 자율주행 택시 유료화, 해외의 족스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의 일상화와 로봇 생태계 확장이 가속화되었다.

국내 토픽

인천시 도입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수도권 전체로 확산...“국내 최초”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안, 2026.3.10.)

광주시, 교통 인프라 집중 투자

경기 광주시에서 '교통'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다. 시민 이동 편의를 넘어 민심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퉀 교통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민 중심 이동 환경 개선'을 교통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철도와 도로 같은 광역 인프라 확충부터 버스 체계 개편, 교통 취약지역 이동 지원까지 교통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인일보, 2026.3.10.)

“헤드라이트 해킹해 후 절도”...커넥티드카 보안 경고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는 9일 '자동차 산업 사이버 위협 전망 2026' 보고서를 발표하고 차량 구조의 취약점을 악용한 차량 절도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공격자가 차량 헤드라이트를 통해 차량 내부 통신망인 차량 내부 네트워크(CAN Bus)에 접근한 뒤 엔진 시동 시스템까지 침투한 사례가 확인됐다. 차량 외부 장치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한 뒤 차량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차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경로로는 차량 정비용 진단 포트(OBD), 이더넷 포트, 근거리무선통신(NFC) 모듈,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칩, LTE 모뎀 등이 지목된다. (전자신문, 2026.3.9.)

광명시, '안전 편익' 다 잡은 스마트 교통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밀그림

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 전략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교통시설과 수단에 접목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신호 제어나 소통 관리에 활용해 전체적인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2036년까지 10년 중장기 로드맵을 담는다. 우선 단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혼잡 완화 등 시급한 과제 해결에 집중한다. (경기시사투데이, 2026.3.11.)

류경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피지컬 AI 기술기업 도약 본격화"

류경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독보적인 기술 주권을 갖춘 '피지컬 AI 기반 기술 기업'으로의 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류 대표는 전날 전사 임직원에게 보낸 CEO 레터에서 "일상의 모든 이동을 책임지는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회사'로 거듭나겠다"며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대등하게 경쟁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가 피지컬 AI 완성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 2026.3.13.)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4월부터 유료 전환 ... 운행대수도 확대

2024년 9월 첫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약 17개월간의 무료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를 정식 교통수단으로 도입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용 요금은 강남 지역(약 20.4km²) 내에서만 운행되는 것을 감안해 기본요금(심야할증 포함)만 적용되고,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달 6일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2026.3.16.)

익산시, 자율 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전북 익산시가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에 착수하며 자율주행 기반 교통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KTX 익산역과 주요 도심 거점을 연결하는 약 10km 구간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영철 건설국장과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실시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SK텔레콤 컨소시엄과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경제TV, 2026.3.17.)

"포트홀·역주행도 먼저 본다"...고속도로 지키는 시의 눈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포트홀이나 예상치 못한 빗길 수막현상은 운전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다. 최근 이런 위험을 인공지능(AI)이 먼저 찾아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47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로 안전 관리가 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캠페인이나 단속을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 원인을 미리 찾아내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교통 안전 관리 체계를 바꾸고 있다. (뉴스1, 2026.3.16.)

카카오맵,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초정밀 버스 위치' 제공

카카오맵이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에서 16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420여개 노선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공항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된다. 이번 파일럿은 오는 21일 BTS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2026.3.16.)

“공장 밖 물류까지 자율주행”...에티포스-에스유엠, 5G-V2X로 산업현장 무인화 추진

산업 물류 자동화가 공장 내부를 넘어 옥외 이송 공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율주행과 통신 기술을 결합해 항만·물류야드까지 무인화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에티포스는 18일 에스유엠과 5G-V2X 기반 자율주행 및 관제 연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항만과 메가 허브, 메가 팩토리 등 대규모 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옥외 이송 공정 자동화를 공동 개발한다. 제한된 구역에서 운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외부 물류 흐름까지 통합하는 구조다. (전자신문, 2026.3.18.)

해외 토픽

인트라픽 암스테르담 2026: “ITS 기술 현장 도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Zero 달성해야”

전 세계 교통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인트라픽 암스테르담(Intertraffic Amsterdam) 2026’이 막을 올린 가운데,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술을 통한 인명 구조가 이번 행사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에인트호번 공과대학교(TU Eindhoven) AI 연구소의 CEO이자 ITS 전문가인 카를로 반 데 웨이어(Carlo van de Weijer)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교통 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현재의 안전 위기를 스스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트라픽 현장을 찾은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단순한 참관을 넘어 적극적인 교류와 논의를 제안했다. (ITS International, 2026.3.10.)

우버 창립자, 로봇·자율주행으로 업계 복귀...자율주행 대부와 손잡아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공동 창립한 기술계의 거물 트래비스 캘러닉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타트업 아톰스(Atoms)로 기술 산업에 복귀했다. 특히 '자율주행의 대부'로 불리는 앤서니 레반도프스키와 손잡았다는 사실로 주목받았다. 그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언문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들어 사회와 기업 모두에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산업용 로봇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식품 생산 자동화와 산업용 로봇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AI TIMES, 2026.3.14.)

토톰(TomTom), 스크린리스 도로 알림 비서 ‘Tom’ 출시... “운전 집중도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글로벌 위치 기술 전문 기업 토톰(TomTom)이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필수적인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크린리스(Screen-free) 도로 알림 비서 ‘Tom’을 출시했다. 최근 교통 환경은 급격한 정체, 예기치 못한 장애물, 단속 카메라 등 운전자가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토톰은 이러한 정보 과잉이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화면을 보지 않고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직관적인 보조 장치를 개발하였다. (ERTICO, 2026.3.18.)

아마존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 미국 오스틴·마이애미로 로봇택시 서비스 전격 확대

아마존(Amazon)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Zoox)가 텍사스주 오스틴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자사 전용 로봇택시를 도입하며 서비스 영토 확장에 나섰다. 죽스는 지난 2년간 해당 도시에서 진행해 온 테스트 차량 운영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얼리 라이더(Early-rider)’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승객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죽스는 신규 도시 진출과 더불어 기존 운영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서비스 규모도 대폭 키우기로 결정하였다. (TechCrunch, 2026.3.24.)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3.31.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사업유형	국비 지원규모	사업기간	신청서 접수기간
'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최대 160억원	3년 ('26~'28년)	'26.5.11.(월) ~ 5.13.(수)
'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최대 80억원	3년 ('26~'28년)	'26.5.11.(월) ~ 5.13.(수)
'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최대 80억원	3년 ('27~'29년)	'26.3.13.(금) ~ 4.30.(목)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 공고

사업명(전담기관)	유형① 지원규모	유형② 지원규모	모집마감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KAIA)	과제별 최대 28.5억원 × 1년	과제별 최대 28.5억원 × 1년	2026.04.20.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ITS Korea)	과제별 최대 28.5억원 (14.25억원 × 2년)	과제별 최대 28.5억원 (14.25억원 × 2년)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2026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보안성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452,000,000	2026. 04. 27.
일반용역	제5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전광역시	102,000,000	2026. 04. 10.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업목적

- ◎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 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

공모내용

사업유형	'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수	1개소	2개소	3개소 이내
사업목적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도시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 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모빌리티 등 도시 환경변화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이 집약된 도시 조성
세부유형	단일 유형	단일 유형	· 기후위기 대응형 · 지역소멸 대응형 · 모빌리티 특화형
지원대상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인구 100만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모빌리티 특화형은 제외)
추진체계	지방정부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지방정부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지방정부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사업기간	3년 ('26~'28년)	3년 ('26~'28년)	3년 ('27~'29년)
국비 지원규모	최대 160억원	최대 80억원	최대 80억원
사업비	320억원 (국비+지방비)	160억원 (국비+지방비)	160억원 (국비+지방비)
신청방법	공모	공모	예산신청
신청서 접수기간	'26.5.11.(월) ~ 5.13.(수)	'26.5.11.(월) ~ 5.13.(수)	'26.3.13.(금) ~ 4.30.(목)

관련 사이트

-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

사업개요

- ◎ 국토교통 산업 AI 고도화, 신시장 창출 및 국민체감도 확산 등을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제품·서비스의 신속 상용화 지원

자원분야

- ◎ (국토·교통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구분	분야	세부설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국토	국토지능화·도시공간정보, 건축·주거 환경 · 다양한 센서 정보를 AI와 융합하여 디지털트윈 국토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확산과 도시계획의 지능화 지원, 건축물 에너지 관리 등 정보화를 통해 국민 체감형 생활환경 고도화를 실현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등
		시설물 설계·해석 및 안전·유지관리 · 건축정보모델링 기반 설계 자동화 및 구조 해석을 지원하고, IoT 센싱과 AI를 활용하여 공동구 등 주요 SOC 시설물의 결함을 선제적으로 예측·진단하며, 생애주기 유지관리 최적화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건설시공 및 재료 · 로봇 등을 활용한 건설공정 자동화 및 무인 원격 시공을 구현하고, AI 영상분석 기반 건설현장 안전 통합 관제로 재해율을 저감하며, 콘크리트 등 건설 재료의 성능·품질 분석 및 친환경 신소재 적용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교통	철도 · 철도 차량·궤도·신호·전력 등 핵심 설비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를 시로 분석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 검지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역사 내 이용자 안전 확보 등 운영 전반의 지능화를 통해 철도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항공 및 물류 · AI 기반 원격관제 및 첨단 항행안전시스템 고도화로 항공교통 안전성과 공항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응한 무인기 교통관리체계 관련 기술·서비스 등 · 로봇·드론 등 차세대 물류 수단 상용화와 물류 운송·보관·하역 전 과정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급망 가시성 확보 및 물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 (도로·모빌리티분야)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구분	분야	세부설명	
디지털 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도로	위험재난 대응 및 선제적 안전관리	· AI 기반 센서·영상 데이터 융합·분석으로 도로 위 위험 상황을 탐지·예측하고, 자동 경보 및 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도로 안전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최적화·자동화	· 도로 관련 시설물*을 AI 정밀 진단으로 손상·노후화를 조기에 식별하고, 유지관리 의사결정 자동화 및 피지컬 AI 장비를 활용한 자율 점검·보수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서비스 등 * 도로, 교량, 터널, 노변시설물, 교통관제시스템 등
		교통운영 지능화	· 실시간 교통흐름 예측을 기반으로 신호 운영, 차로 제어, 돌발 대응 등 AI 기반 교통관리 최적화를 통해 도로교통 효율 극대화 및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	· 이용자 패턴, 실시간 교통 수요 및 교통상황을 학습·분석하여 AI 기반 맞춤형 최적 경로 및 수단 추천과 실시간 연계·조정을 통해 이동·배차 효율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서비스 등

신청방법

- ◎ (공고기간) 2026. 3. 19.(목) ~ 2026. 4. 20.(월), 18:00 까지
- ◎ (접수기간) 2026. 4. 6.(월) ~ 2026. 4. 20.(월), 18:00 까지
- ◎ (접수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
 - (국토·교통)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 (도로·모빌리티)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s://www.bojo.go.kr>)
- ◎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그 외 제출서류

문의처

지원사업명	전담기관	연락처	이메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537	bizhub@kaia.re.kr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031-478-0419	axsprint@itskorea.kr

2026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보안성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개요

- ◎ 과업명 :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보안성개선 및 운영 유지관리 용역
- ◎ 과업예산 : 452,000,000원(부가세 포함)
- ◎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7.04.30.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착수일 ~ 2026.12.31.까지
 - 2차년도 : 2027.01.01. ~ 2027.04.30.까지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 가격 10%), 장기계속계약

주요 과업내용

- ◎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 ◎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 차세대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능 강화
- ◎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서비스 운영 지원

과업 배경 및 목적

- ◎ 농촌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심화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의 재산성 악화로 대중교통 운행 감소 및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 지속
- ◎ 노선버스 수송분담률 지속 하락으로 운영 적자 심화 및 지방 축소로 인해 지방 노선버스 수요 감소 가속화
- ◎ 과소화·공동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층의 의료·복지문화 접근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 제공

문의처

- ◎ 한국교통안전공단 송승진 선임연구원(054-459-7447)

제5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개요

- ◎ 용역명 : 제5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 ◎ 용역비 : 금102,000,000원(부가세 포함)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필요
- ◎ 특히, 대전광역시는 고령자 증가, 3칸 굴절버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사회 여건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 본 용역은 대전광역시의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교통체계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하고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및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과업범위

-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7~2031년(5개년)
- ◎ 내용적 범위
 - 제4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22~'26) 추진 성과 및 실적 분석
 - 교통체계 현황 파악,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문의처

- ◎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042-270-0761)

ITSK NEWS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공모… 4월 6일부터 접수 시작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희, 이하 '협회')가 전담기관으로 나서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지난 3월 19일 발표되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사업은 도로 및 모빌리티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상용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본 사업은 크게 도로와 모빌리티 두 가지 분야의 AI 융합서비스 및 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AI 기반 위험 상황 탐지 및 재난 선제적 대응 ▲교량, 터널 등 도로 시설물 노후화 진단 및 유지관리 자동화 ▲신호·차로 제어 등 교통운영 지능화 ▲이용자 맞춤형 경로 추천 등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업은 기업의 목표와 준비도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단기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타입1(Agile)' 트랙은 1년간 (26.06~27.05) 최대 28.5억 원을 7개 내외 과제에 지원하며, '타입2(Build-up)' 트랙은 1.5년간 (26.06~27.12) 연 1.425억 원 규모로 5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시제품 제작 및 데이터 구축비, AI 분석용 GPU 클라우드 임대료, 장비 임차비 등 상용화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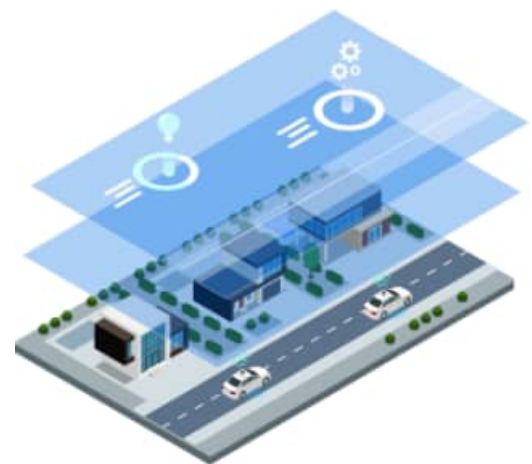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본 사업이 범부처 'AX 스프린트(AX Sprint)' 우대트랙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우수 성과물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어 공공기관 시범구매를 통한 초기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등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금리 인하(0.1%p) 혜택은 물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60억~100억 원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선정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본 공모의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6일(월)부터 4월 20일(월) 18시까지다. 지원 자격은 도로·모빌리티 분야 기술 성숙도를 갖춘 단독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며, 주관기관은 반드시 영리기업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주관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해 협회에 제출한 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육 일정 안내



2026년 4월 교육일정

연번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비
1	요금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1(수)~2(목)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65,370원
2	EMME4를 활용한 수요분석 실습(중급)	4.2(목)~3(금)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8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65,320원
3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4.9(목)~10(금)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50,370원
4	AI 답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초	4.9(목) 1일(6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23,690원
5	[공무원/일반] ITS 서비스 및 시스템 개론	4.13(월)~14(화) 2일(13h)	협회 교육장 (604호)	20명	• 우선지원기업 : 200,000원 • 대규모기업: 200,000원
6	C-ITS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작성 실무	4.14(화)~15(수) 2일(12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35,700원
7	자율주행 인지기술과 3D 교통정보	4.14(화)~15(수) 2일(15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56,370원
8	ITS 정보보안 기술	4.16(목)~17(금)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57,040원
9	ITS 사업감리 업무 요령(초급)	4.16(목) 1일(8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32,110원
10	ITS 시스템 변천 및 기술	4.17(금)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8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28,030원
11	QGIS 활용 교통 공간정보 분석(초급)	4.22(수)~23(목)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60,290원
12	CCTV(카메라) 기반 도로교통정보 생성 및 응용서비스 실무	4.28(화) 1일(8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32,370원
13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SLAM) 기술 개론	4.29(수)~30(목) 2일(12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48,650원

※ 우선지원기업은 전 교육과정 무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ICT 표준 자문 서비스 홍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ICT 표준 자문서비스로 성장할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표준동향국내-외 표준 적용국내-외 표준 개발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ICT 분야 중소기업 누구나	 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ICT 표준 자문서비스 홈페이지' 신청consulting.tta.or.kr	 접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시 접수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무제한 지원	 진행 절차  →  →  기업 자문신청 자문전문가 매칭 자문진행		

consulting@tta.or.kr | <https://consulting.tta.or.kr/> | TTA 표준화본부 표준혁신단 표준성과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ICT 표준 활용지원 서비스 홍보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을 보유하거나 적용했다면?

2026

ICT 표준 활용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ICT 분야 중소기업 누구나

ICT 표준기술 가치평가 전액 지원 • 보유 기술의 표준화여부에 따라 객관적 가치 산출	ICT 표준기반 시험인증 최대 1,000만원 지원 • GS인증, KC인증, V&V인증 등
--	---

consulting@tta.or.kr | TTA 표준화본부 표준혁신단 표준성과센터

Monthly ITS 기사 투고 및 광고 게재 안내

월간지 <Monthly ITS>의 기사 투고 및 무료 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투고된 기사는 <Monthly ITS>의 특별기고 형태로, 무료 광고는 내지의 전면광고로 게재됩니다. 회원사의 권익증진 및 폭넓은 정보제공과 ITS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격 ITS 관련 정책·산업·발주 정보·연구동향 등 전문지식·교양 정보지
※ 매월 첫번째 화요일(월1회, 연간 총12회) 발간 및 배포

지면 50면 내외의 레터 사이즈(215.9×279.4mm), 컬러, 모조지120g

특징 협회를 대표하는 정기 간행물
무료 배포 및 협회 홈페이지 업로드
회원사 및 ITS 분야 종사자 주요 독자층 확보

기사 투고 안내

목적

- ITS분야 종사자 및 기관에 다양한 정보와 지식 전달

내용

- 위치 : 내지 Special 특집
- 분량 : 15페이지 이내
- 내용 : ITS 관련분야 정책, 기술, 연구, 해외동향 등 ITS 전문정보, 기업경영, 인문 등 교양정보

자격

- ITS분야 종사자 및 산업계에 알리고 싶은 전 국민 참여 가능

방법

- 2개의 파일(①투고 신청서 ②원고)을 구분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광고 게재 안내

목적

- 회원사의 기술력, 제품을 홍보하여, 국내외 시장 확대 및 기업간 상호 협력 증진

내용

- 위치 : 내지 전면광고
- 분량 : 1~2페이지
- 내용 : 회사 홍보, 기술, 제품 홍보, CEO·중역 인터뷰

자격

- 협회 회원사는 누구나 게재 가능

방법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직접 제작
- 2개의 파일(①게재 신청서 ②광고 내용(pdf파일))을 구분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일동 707-2) ITS 인증·성능평가센터 3층 전략기획팀
H itskorea.kr E asiakys@itskorea.kr
P 031-478-0451 F 031-502-0548